

500명

코로나 이후 6시 광주 356명·전남 129명 '역대 최대'
오미크론 우세종 연일 폭증 ... '일상 잠시 멈춤' 권고

광주, 어린이집·유치원 2주 휴원

2020년 1월 20일 자각지긋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꼭 2년이 흘렀다. 광주·전남에선 같은 해 2월 3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백신 개발에 이은 접종 소식에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도 잠시, 최근 감염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라는 신종이 발생하면서 광주·전남은 연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급기야 19일에는 광주에서 일일 확진자로는 역대 최대인 300명을 넘어섰다. 감염 취약층인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백신 미접종자 그룹인 어린이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 집단감염까지 겹쳤다.

〈관련기사 2면〉

결국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이들의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원한다"며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긴급 돌봄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2월 6일까지 다중 이용시설 방역 상황을 특별 점검한다. 특히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중사

자 사적 모임 자제, 행정명령에 따른 선제 검사 적극 참여, 확진자 동선 분리, 엄격한 출입자 관리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또 현재 7개 병원, 2개 생활치료센터 749개인 병상을 1061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6시 현재 35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37명(누적 226명), 광산구 요양원에서 14명(누적 144명)이 추가로 확진 되는 등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물론 어린이집 등 폐쇄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추세라고 방역 당국은 우려했다. 이는 지난 8~14일 광주에서 발생한 전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오미크론이 80%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일일 확진자는 지난 13일(224명) 처음으로 200명대를 기록한 뒤 6일만인 이날 300명을 넘어섰다. 월별 확진자도 이날 현재 2903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1804명)을 훨씬 초과했다. 광주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잠시 멈춤'을 강력히 권고했다.

전남에서도 이날 오후 6시 현재 목포 43명, 무안 22명, 나주 18명, 순천 12명 등 17개 시군에서 1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8일에도 18개 시군에서 154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도청에선 일반직 공무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 광주본부 출범

이해찬 상임고문

"이재명 한국 대전환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광주본부가 19일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출범식에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조정식 미래시민광장 상임위원장, 이형석 미래시민광장 공동위원장 겸 광주상임본부장이 참석했다.

미래시민광장 광주본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시민지지 강화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이재명 후보

는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지금의 선거 구도로 봤을 때 초접전 상황으로, 3%의 차이가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 전까지의 민심이 결국 투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면서 "당원 동지들의 단결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후보를 10여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실천력과 추진력이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는 20일 오전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전남본부 출범식을 열고, 오후에는 전북에서 전북본부 출범식을 갖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9일째인 19일, 붕괴 건물 옥상에서 행정안전부 실사단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사고 수습 정부가 직접 나서야”

세계 유례 없는 고난도 사고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한계

최고 수준 인력·장비 투입 절실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설치 요청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구조와 수습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주시와 HDC현대산업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현장을 진단한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고난도 사고 현장이라며 국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6, 7면〉

광주시는 사고 초기 수습 자치단체인 서구청의 역량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용섭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정부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등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열린 20명으로 구성된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복합적인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사고 수습에도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례 없는 고난도 사고 현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아파트 16개층 일부가 한꺼번에 내려 앉은 유례 없는 사고라는 점을 들어 수습하는데 지자체의 행정 능력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고현장은 타워크레인 손상에 따른 전도 위험과 건축물 추가 붕괴, 상층부 다량 잔재물 적치에 따른 낙하사고 등 다수의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때문에 인명구조와 현장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속한 수색과 붕괴건축물 처리 등을 위해선 최고 수준의 구조전문가와 최첨단 장비 등의 지속적인 동원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렸다. 특히 수색 이후에도 인근 주민과 건축물 등의 안전 확보, 2차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역 내에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참여자치21 등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도 '현대산업 개발 퇴출과 정몽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 등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구조 상황을 차분히 기다려왔던 5명의 실종자 가족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가족들은 이날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다녀가도 달라지는 게 없다"며 "실종자들 모두 소중한 국민인 만큼 정부가 직접 최대한 빨리 구조와 수색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인 만큼 가족과 지역사회의 의견 등을 모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면서 "일단 정부에 신속한 구조·수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